

## 미얀마의 석유산업 현황

**최근** 油公이 미얀마(舊 버마)의 C광구의 석유 탐사 및 개발권을 획득함으로써 미얀마의 석유상류부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미얀마에는 30여개의 外國석유사가 油田탐사·개발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는 20천b/d의 석유수입에 연간 13억달러의 外貨를 지출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여의치 않은 外환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얀마정부는 신규유전탐사 개시와 既存油田 및 정유소의 再稼動을 위해 外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外자도입과 시추탐사 성공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향후 8년동안 총 45백만배럴의 석유수입이 불가피하다. 미얀마는 국제석유자본의 유치를 통해 2억 배럴의 신규매장량을 확보, 2000년대 40천b/d의 석유수출국 부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얀마는 현재 경제성장 후퇴로 세계 最貧國중의 하나이며, 만성적인 연료유공급부족에 처해 있다. 미얀마는 석유수입의존도 증대에 따른 外화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국내수요 35천b/d를 충당하기 위해 20천b/d의 원유수입이 필요). 만약 緊急措置(외국으로부터의 원조 등)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1990년대초에 에너지부족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에너지소비가 급격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에너지부족과 경제파국은 미얀마의 정치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현재 미얀마에는 3개의 정유공장이 가동중이다. 그러나 원유공급 부족과 파업, 고장 등으로 실제정제량은 15천b/d로서 設計정제능력 58천b/d의 1/4에 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유공급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석유비상수급 계획에 의하면, MPIEC

(Myanmar Petroleum Industry Enterprise)로 하여금 ADB長期低利借款을 도입, 연말까지 1백만배럴의 석유를 수입토록 하고 있다. 연간 석유수입代錢은 13억불로서 총수입액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外환보유고의 막대한 유출을 초래, 1988년말의 경우 外환보유고는 1천만불이하로 감소되었다. 미얀마는 지난해 석유수입을 위해 5천 5백만불 상당의 차관을 ADB로부터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제신용도 저하와 권추리·리스크 증대로 공공차관 이외의 민간차관 도입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치·경제개혁, 환율조정, 外債 再協商 등에 대한 미얀마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때문에 ADB조차도 차관제공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는 국내석유산업의 上·下流部門에 대한 투자를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미얀마는 지난 80년대의 경제정책실패를 거울삼아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 신규유전 探査와 기존유전 增産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Amoco, BP, 日本, 韓國 등과 육상유전의 P/S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는 네인 前首相의 개인적인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폐한 유전의 재가동과 EOR(回收率 增進法)기술 도입, 정제시설 현대화 그리고 육상 및 해상유전의 탐사에 필요한 外외자본의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안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미얀마는 극심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自國에 유리한 P/S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있다(예를 들면 과중한 생산 보너스 납부, 탐사개발비 轉嫁, 탐사·시추작업 프로그램 단축 등). 외국 진출회망 기업은 이렇듯 동남아 他 지역보다도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유전발견 리스크가

미얀마의 석유수급 전망

(단위 : 천b/d)

	수요	공급				
		국내소비 <sup>1)</sup>	기존	유전	신규유전 (외자운영) <sup>2)</sup>	수입
			생산량	EOR <sup>3)</sup>		
1989	35	15	-	-	20	
1990	35	15	5	-	15	
1991	35	14	8	-	13	
1992	35	13	11	-	11	
1993	37	12	12	-	13	
1994	39	10	14	-	15	
1995	41	8	8	6	19	
1996	42	5	7	16	14	
1997	43	4	5	32	2	
1998	44	3	4	54	-17	
1999	45	2	3	71	-30	
2000	47	1	2	82	-39	

- 註 : 1) 증가율 : 1992~5(5%), 1996~2000(3%)  
 2) 5년 이내에 과거 최대생산량 회복  
 3) 1993년까지 p/s계약 체결, 1992년 2천만 배럴급 매장량 확보후 매년 2개 추가

비교적 작고 잠재 매장량이 크다는利點때문에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육상유전개발 진출희망기업은 BP, Amoco, Texaco, Exxon, Unocol, BHP(濠洲), Japex, Idemitsu(日本), Conoco, Occidental, Total, Elf(프랑스), Hunt(美國)등 30여개에 이르고 있다.

미얀마는 1994년까지 석유자금을 위해 기존유전의

재가동 및 증산에 큰 기대를 걸고 자본과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ADB는 미얀마의 2대 유전지대(現 미얀마 산유량의 80%차지)인 Htauksabin유전(매장량 317백만배럴)과 Mann유전(매장량 174백만배럴)의 재가동과 EOR기술도입에 50만불 상당의 기술지원을 승인하였다. 본격적인 EOR프로그램의 추진에는 총 2억 2천만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EOR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향후 20년간 석유 41천b/d, 천연가스 5.5MCF/D의 증산이 기대된다.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척되면 미얀마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석유수출을 개시, 2000년 이후 石油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관적인 전망에 의하면, 내년부터 외자자본의 석유탐사·개발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기존유전의 재가동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短期 국내공급 부족은 긴급석유수입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표 참조).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도 미얀마는 1997년까지는 45백만배럴의 석유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수출은 1998년에 가셔야 가능하고(17천b/d) 2000년대초에 40천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同 전망에 따르면 기존유전의 産油量은 1994년에 24천b/d(1980년의 80%수준)으로 확대되고 1992년에 2천만배럴의 신규매장량 발견과 1995년부터 같은 규모의 매장량을 매년 확보하여 1997년까지 총 2억배럴의 매장량 확보를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석유매장량의 확보목표는 海洋石油試錐가 성공한다면 예정보다 빨리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동향>

□ 도서안내 □

# 석유의 이모저모

- 大韓石油協會 -